

has not been well defined yet.

We evaluated 160 cases of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ASCUS) by The Bethesda System to define cytologic criteria of atypical cells based on cyto-surgical correlation. Among 30,428 cases screened, a cytologic diagnosis of ASCUS was made in 498 cases(1.6%) and 160 cases were histologically verif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23 cases(76.9%) revealed chronic cervicitis. 37 cases(23.1%) demonstrated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ondyloma and CIN I were most common(28 cases, 75.7%). CIN II and CIN III were 5 cases(13.5%) and 4 cases(10.8%), respectively.

Conclusions :

1. Patients with a cytologic diagnosis of ASCUS should be histologically verified.
2. Condyloma and CIN I were most common histologic abnormalities.
3. Cytologic criteria of ASCUS should be established.

### 3. Pap Smear 에서의 자궁내막암의 세포학적 진단의 의의

- 조직유형, 분화도 및 병기와의 관련성 -

제일병원 조직병리과  
홍성란, 박종숙, 김희숙

자궁내막암은 최근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세포병리학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자궁경부암과 달리 정기 세포검진에서의 조기 발견이 쉽지 않고 또 임상적으로 수술전 예후인자 평가에서도 세포학적 진단의 의의가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Pap. smear에서의 자궁내막암의 세포학적 의의를 관찰하고자 1986년 부터 1992년까지 제일병원 병리과에서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자궁내막암 환자중 세포학적 검토가 가능하였던 49례를 대상으로 조직유형, 분화도 및 병기 등의 병리학적 예후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The Bethesda System에 의한 총 49례의 세포학적 진단은 within normal limits 11례(23%), atypical glandular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AGCUS) 7례(14%), endometrial adenocarcinoma 31례(6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분화도가 나쁠수록 분명한 종양소인, 다수의 암세포, 높은 N/C ratio, 큰 핵소체, 개별세포의 도말 소견을 나타내었고, 잘 분화된 암종의 세포도말 소견은 증식성 자궁내막의 세포학적 소견과 유사하여, 분화도에 따른 세포학적 진단이 가능하였다. 각 분화도에 따른 암세포 발견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분화도가 좋을수록 AGCUS가 많은 빈도에서 관찰되어 암종세포와의 감별이 어려웠다. 한편, 조직유형을 보면, UPSC, clear cell carcinoma, undifferentiated carcinoma가 각각 3례, 1례, 1례로 전예에서 세포학적 진단이 가능하였다. 수술 병기 판정이 가능하였던 31례 중, Stage I이 23례(74%)로 가장 많았고, 낮은 병기

(Stage I & II)에 비하여 높은 병기(Stage III & IV)일수록 정상이나 AGCUS의 세포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단지 암세포만 출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Pap. smear에서의 자궁내막암 진단율은 63%였고, 예후가 나쁜 유형일수록, 분화가 나쁠수록, 높은 병기의 암종일수록 세포학적 진단이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 4. 자궁 경부의 유리질 세포 암종의 세포학적 소견

- 1례 보고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이상엽, 이광길

자궁 경부의 유리질 세포 암종은 1956년 Glucksmann 등이 처음 기술한 것으로 자궁 경부에서 생기는 혼합 선편평암종중 가장 분화가 나쁜 암종으로 임신중에 호발한다. 질병의 경과가 빠르고 조기에 원격전이를 하여 예후가 불량하며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이 종양은 보통 양성병변이나 다른 종류의 악성종양으로 오인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조기 진단이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세포학적으로 감별해야하는 질환으로는 양성질환으로 비정형성 수복세포와 악성으로는 분화나쁜 비각화성 대세포성 편평세포암종, 분화나쁜 선암종등이 있다. 특히 감별이 어려운 비정형성 수복세포는 세포질이 과립상으로 풍부하고 핵이 비교적 균일한 크기와 형태로 보이고 염색질이 미세하게 흩어져 있으며 핵소체가 한개로 뚜렷하다는 점이 유리질 세포 암종과 매우 유사하지만, 대개 종양 소인성 도말 배경없이 단지 염증성 소견만 보이고 집단으로 도말되며 각각의 세포들이 군집내에서 극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등이 다른 점이다. 분화나쁜 비각화성 대세포성 편평세포암종은 유리질 세포암종의 특징적인 소견인 미세과립성 세포질, 미세하게 흩어진 염색체를 갖는 수포성 핵, 한개의 뚜렷한 핵소체등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 내경부에서 기원하는 분화나쁜 선암종은 경계가 뚜렷한 종양세포군집을 이루고 세포질이 과립으로 미세하고 공포가 없으며 염색질의 배열양상이 유리질 세포암종과는 차이가 있다.

저자들은 자궁경부의 유리질 세포암종 1례를 경험하여 세포학적 소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38세 여자로서 2일간의 질출혈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내원 9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성교후 출혈이 있었다고 한다.

자궁-질 도말 표본에서 괴사성 및 출혈성 배경에 세포의 경계가 뚜렷하고 과립성의 풍부한 세포질을 갖는 종양세포가 개개로 또는 군집으로 도말되었다. 핵은 크며 원형 또는 난원형으로 염색질은 미세하게 흩어져 있고 핵소체는 매우 크고 뚜렷한 한개의 호산성 둥근 소체를 보였다. 도말배경에는 주로 호산구로 구성된 다수의 염증세포가 관찰되었다.

조직생검에서는 유리질 세포질을 가지는 큰 세포군집들이 간질내로 침윤하고 있었으며 명확한 세포간 경계를 보이고 원형 또는 난원형의 큰 핵과 뚜렷한 호산성 핵소체를 보였다. 유사분열이 자주 보였으며 비정형 유사분열도 동반되었다. 간질내에는 염증세포의 광범위한 침윤이 있었는